

無爲와 無用, 4.19세대 청년의 새로운 윤리

- 김승옥 소설의 청년 인물을 중심으로 -

김경민*

|| 차례 ||

- I. 4.19혁명과 '청년'의 등장
- II.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청년들
- III. 의도된 無爲, 가치 있는 無用
- IV.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행동으로서의 無爲
- V. 또 하나의 혁명, 1960년대 청년의 새로운 윤리

【국문초록】

어느 시대나 청년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자 희망과 열정의 상징으로 불렸다. 그러나 청년을 상징하는 이러한 수사는 기성세대와 사회로부터 부여된 것일 뿐 청년들 스스로가 붙인 정체성은 아니다. 더욱이 '개인'과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온 4.19세대의 청년들로서는 자신들의 선택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4.19혁명 이후 1960년대 청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김승옥 소설의 청년 인물들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며 실패하고 소외된 존재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석이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으로는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며 단지 게으르고 쓸모없어 보이는 이들의 행동이 실제로는 기성의 가치와 그들로부터 강제된 역할에 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새로운 해석이다. 기성의 논리로는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것으로만 평가될 문학과 예술, 공상 등의 행위에 오히려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김승옥의 청년 인물들은 '자기 세계'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무위(無爲)와 무용(無用)으로 설명되는 일련의 행동은 기성세대가 일방적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으로 부여하는 과거의 윤리와 이별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윤리를 마련하여 실천해가는 과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평가할 만하다.

주제어: 김승옥, 청년, 4.19혁명, 4.19세대, 윤리, 개인, 무위, 무용

I. 4.19혁명과 ‘청년’의 등장

어느 시대에나 ‘청년’은 뜨거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를 ‘청년’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공동체의 미래와 연관시키는 담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청년’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과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흔히 ‘2.8독립선언’으로 불리는 선언의 정식 명칭은 ‘조선청년독립단 선언서’로, 이 선언서는 “朝鮮靑年獨立團은 我 二千萬民族을 代表하여 正義와 自由의 勝利를 得한 世界萬國의 前에 獨立을 期成하기를 善言하노라”로 시작된다. 이 글에 따르면 청년은 단순히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며, 정의와 자유, 독립을 이루어내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이들로 규정된다.¹⁾

이렇게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이라는 개념은 이후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미지로 재현되고 기억되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청년’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모습보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규정하고 명명한 이미지로 기억되고 평가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1) 황호덕, 「청년, 그 이상의 이념을 생각한다: 超世代論序說」, 『당대비평』, 2003.3, p.240.

청년 세대가 주목받은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노지승의 논의에 따르면, 표상으로서의 ‘청년’을 구성하는 주요 담론 가운데 하나는 관제가 주도하는 담론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지배 담론이다. 어느 사회나 할 것 없이 ‘청년’에게는 “사회의 건전한 구성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강제”한다.²⁾ 특히 청년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래의 희망을 선취해야 할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호명되기는 1960년대의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사회적, 역사적 주체로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데에는 단연 4.19혁명의 역할이 컸다.

당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 모형을 창조해야 할 전위적 사명이 부여된”³⁾ 주체의 이름은 엄밀히 말하자면 청년 일반이기보다 ‘대학생’이었다.⁴⁾

理想을 잃지 않는 限, 三, 一情神과 四, 一九의 情神은 영구히 학생의

-
- 2) 노지승, 「대학생과 건달, 김승옥 소설과 청춘 영화에 나타난 1960년대 청년 표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집, 2007, p.390.
- 3) 김태길, 「파이오니어로서의 姿勢-大學生과 모랄의 改造」, 『사상계』 1962. 4월호, p.93.
- 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청년’ 개념은 ‘대학생’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정의로 간단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만큼 ‘청년’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들의 계급과 젠더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기존 논의에서는 생물학적 연령으로서의 20대를 청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생’을 “60년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청년의 대명사”(이호규, 「1960년대 서사에 나타나는 ‘청년’ 표상의 조건과 선택」, 『대중서사연구』 제23집 3호, 2017.8, p.456)로 간주하고 있다. 노지승과 이호규 등은 대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층 계급 청년들도 함께 호명하였으며, 이들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1960년대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김승옥 소설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청년 인물들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대학생’이라는 기존의 암묵적인 등식을 전제로 삼고자 한다.

소유물이 될 것이며, 自由大韓의 활소가 될 것이며, 民主繁榮의 原泉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近代文明으로부터의 후진성과 경제적 빈곤과 國土兩斷의 民族的悲劇은 대학생들의 意慾의인 이성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⁵⁾

이렇듯 새롭게 도래할 시대의 주체로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특히 더 주목받았다. 이성과 지성의 상징인 이들이야말로 국가의 후진성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또는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족의 내일을 담당할 힘과 생기를 기르라”며 청년이 국가의 미래를 담당하고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4.19 때처럼 거리로 몰려나와 직접적인 ‘정치’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학생은 학원으로 돌아오라”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청년은 학교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주장한다.⁷⁾ 이런 경계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혁명의 주역이었던 청년은 어느 순간 정치의 영역에서 사라진 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 소외와 배제의 이미지로만 재현되기 시작한다.⁸⁾ 정치와 학문은 분리되었고, 청년의 위상은 탈정치적

5) 현승중, 『講義, 試驗, 씨클』, 『사상계』 1962년 4월호, p.109; 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 우찬제, 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p.208 재인용.

6) “청년, 특히 대학생들은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1950년대 말까지 이유 없는 반항자의 이미지로 치부되었으며, 그들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찬미해 맞이해야 할 신세대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4.19라는 사건을 거치면서이다.”(소영현, 앞의 글, p.207).

7) 유진오, 「4.26政變과 大學生의 進路」, 『고대신문』 1960.5.3.; 소영현, 앞의 글, p.212 재인용.

8) 실제로 당시 4.19혁명 이후에 부각된 청년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이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군사정권의 전략으로 인해 청년들이 직접 전면에

영역에만 갇히게 되었다.⁹⁾ 그 결과 청년들은 정치와 거리가 먼 문화의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970년대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이런 청년들에 대한 평가는 “공공심(公共心)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시위나 데모와 같은 공적인 행동에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할 정도의 열성은 대부분 억압되게 된다”¹⁰⁾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한 마디로, 4.19 이후 청년들은 정치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청년의 표상을 연구한 노지승의 논의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1960년대 청년들을 바라본다. 그는 1960년대 청년의 표상을 구축하는 층위의 하나로 미디어가 유포하는 문화 담론을 꼽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승옥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대학생들을 분석한다. 김승옥 소설의 대학생 청년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에게서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 즉 정치적 발언의 수위는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1960년대 청년(대학생)의 특징으로 많은 논의들이 언급하고 있는 사회로부터의 소외 현상 또한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나서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군사쿠테타가 성공하자마자 군사정권은 즉각적으로 모든 학생조직체들을 해체시켰다. 동시에, 대학생 인구의 대규모에 놀란 나머지 대학교 숫자의 감축과 함께 대학생수도 당시 절반에도 못미치는 5만명선으로 감소시키려고 하였으나, 각 대학의 반발과 압력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1963년 10월 대선과 11월 총선 이후 군정이 민정으로 바뀌고 난 후 대학생들은 정권의 입장에서 최대의 위협이었다. 특히 64년 한일회담을 앞두고 일어난 시위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적이었다. 4월혁명의 욕동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들에 대해 설득과 강압적인 전략을 번갈아 사용한 끝에 휴교령과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오병현, 「한국에 있어서의 대학생과 정치」, 『세대』 1969. 4, p.83; 박대현, 「청년문화론에서의 ‘문화/정치’의 경계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집, 2012.9, p.426 재인용).

9) 소영현, 앞의 글, p.213.

10) 박대현, 앞의 글, p.436.

이렇듯 1960년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논의에서 당시 청년의 모습은 대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며,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로 설명된다.¹¹⁾ 그러나 기존 논의에서 정형화된 채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런 시각을 그대로 신뢰해도 될 것인가? 사실 1960년대 청년들을 가리켜 “공공심(公共心)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시위나 데모와 같은 공적인 행동에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할 정도의 열성은 대부분 억압되게 된다”고 했던 평가는, 청년의 역할은 시위나 혁명과 같은 ‘공적’인 행동이며, ‘열정’은 청년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청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리의 시위대 속이며, 그들은 언제나 사회를 위한 공공심과 정의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모든 개념이 그러하듯, ‘청년’이라는 존재 또한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할이나 이미지와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이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부여한 의미 보다 타인들의 다양한 필요와 욕망에 의해 붙여진 이미지가 더 많이 회자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청년을 표현할 때 따라붙는 혁명과 공공심, 열정과 희망 등의 요소들 역시 청년들의 자의적 모습이 아니라 외부의 욕망이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문제제기일 것이다.

11) 박대현과 노지승의 연구 외에도 청년 담론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당위적 차원이나 정형화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청년’을 논하고 있거나, 혹은 당시의 그런 편협한 시선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가령, 유창민은 「1960년대 잡지에 나타난 대학생 표상-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겨레어문학』 제47집, 2011.12)에서 4.19 이후 새롭게 등장한 대학생에 대해 기성세대가 “비윤리적, 감상적이라는 부정적 표상을 만들어 내었고, 그것은 이후 한국 사회 대학생의 대표적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현상은 언급하면서도 그것의 이면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표상을 살피는 데서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성세대가 만든 편협하고 다소 부정적인 표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칠’ 청년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¹²⁾

1968년 12월에 발표된 국민교육헌장에는 박정희 정권이 양성하고자 했던 이상적 국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 국민교육헌장의 기원은 쿠데타 직후 시행된 재건국민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최고회의 직속의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한다. “하루 속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게 해 참다운 자유민주정치의 기틀을 공고히 세우”¹³⁾기 위해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근면 정신의 고취, 생산 및 건설 의식 증진, 도덕적 양양, 정서 순화, 국민 체위 향상”¹⁴⁾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개조 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재건국민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화 사업의 목표는 분명했다. 국가발전과 성장, 조국 근대화에 앞장설 주역으로 국민을 규율화하고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당시 국가가 제시하는 기치는 한 마디로 ‘하면 된다’였으며,

12)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 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4, pp.235-236.

13) 이상록, 「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장문석, 이상록 엮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pp.343-344.

14)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 편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p.19.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상적 국민’의 모습은 ‘생산적 주체’이자 ‘발전주의적 주체’였다.¹⁵⁾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 ‘열정’과 ‘노력’이었으며, 경계해야 할 것은 나약함과 질병, 나태와 체념이었다. 이러한 이상적 국민상(像)에의 요구와 압박은 청년들에게도 예외일리 없었다. 오히려 튼튼한 몸과 성실한 마음, 끝없는 열정과 노력이라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이 바로 청년이었다. 이들이야말로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갈 주역이자,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상이 바로 청년이었기에 이상적 국민의 이미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사되고 강요되었던 대상 또한 바로 청년이었다. 이러한 청년들을 향한 대통령의 요구는 분명했다. “통일한국의 새역사를 개척하는데 청년학도들이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¹⁶⁾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요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년의 열정과 노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비단 조국 근대화를 외치는 대통령의 것만은 아니었다. 정권을 비판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도 청년은 새 시대의 희망이자 변혁의 주체였다.

백찬 격동 속의 一年間에 나라 일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는 모두가 다 아는 바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감정은 결코 마비되었거나 잠들었거나 말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은 이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보람있는 큰 일을 이루고야 말았던 것이다. 겨레의 장래에 두고 두고 보람

15) 박정희 체제가 양성하고자 했던 국민의 모습을 가리켜 ‘생산적 주체’, ‘발전주의적 주체’라 명명한 것은 이상록의 논의(「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제25집, 2011, 「산업화시기 ‘출세’, ‘성공’ 스토리와 발전주의적 주체 만들기」, 『인문학연구』 제28집, 2017)에서 차용한 것이다.

16) 「박대통령 강조 배우며 싸우는 결의 갖자」, 『동아일보』 1970.5.23.

있을 그 큰일을 위하여 청년들은 마침내 거룩하고 뜨거운 피를 흘린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존경과 또 자랑스러운 마음은 얼마나 커졌던가.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친 것은 바로 청년들이었다.¹⁷⁾

기성의 부패와 악습에 맞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대안은 청년이라는 것이 진보적 지식인들의 생각이었고, 이 믿음은 5.16쿠데타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러한 생각 역시 청년 세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정의감과 정열이 투철할 것이라는 혹은 그러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들이 떠올리는 이상적 청년의 이미지는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투지와 열정, 정의감으로 돌진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박정희의 재건국민운동이 제시하는 이상적 국민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즉, 이념과 철학, 목표를 막론하고 청년에게 투사하는 이미지와 기대하는 역할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미지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열정’이 있었다. 그들에게 청년은 늘 무언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어야만 했다.

Ⅲ. 의도된 無爲, 가치 있는 無用

국민교육헌장의 첫머리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국가가 요구하는 ‘발전주의적 신체’, ‘생산적 신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이었다. 물론 이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서의 청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활기 넘쳐야 할 청년의 모습은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17) 장이욱, 「권두언: 청년의 정열」, 『새벽』 1960.10월호, p.28.

몸”과는 거리가 멀었다.

1960년대를 상징하는 청년의 아이콘은 단연 김승옥이다. 그의 소설집은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당대의 평론가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 있었다.¹⁸⁾ 이런 김승옥을 가리켜 1960년대, 특히 1960년대의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1960년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써낸 소설들은 한낱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작가 스스로도 자신이 “60년대 작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김승옥이 그리고 있는 당시 청년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힘이 빠져 나간 몸뚱이”(「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143)였다.²⁰⁾

할 수 있을까? 저 하술한 벽에 김 노박의 불을 붙이는 일. 문제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상 위에서, 오려진 김 노박의 불을 집어 들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편을 찾고…… 그럴 만한 기운이 지금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불을 아무리 몸에 감아도 이 주일 동안이나 불을 때지 않은 방의 냉기를 막아낼 수는 없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 내게 지금 일어날 기운이 있을까? 이렇게 정기 없는 눈으로 보아도 벽의 그 귀퉁이는 아무래도 허술하다.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140)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의 주인공은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18) 송태욱의 「김승옥 소설의 독자를 찾아서」에 따르면, 당시 김승옥의 소설은 청년 문학도들에게는 마치 교과서처럼 읽혔고 당대 평론가들이나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한 찬사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송태욱, 「김승옥 소설의 독자를 찾아서」, 백문임 외, 『르네상스인 김승옥』, 엘피, 2005를 참조할 것.

19) 김승옥, 「작가의 말: 나와 소설 쓰기」, 『무진기행』, 2004, p.8.

20)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김승옥 소설은 모두 『김승옥 소설전집』(문학동네, 2004)에 실린 것으로, 이후 인용하는 소설의 출처는 소설 제목과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방 한 구석에 “힘이 빠져 나간 몸뚱이”의 상태로 누워만 있는 인물이다. 방의 냉기와 배고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나 활동해야 할 것만 같은 청년의 이미지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환상수첩」의 모든 청년들도 다르지 않다. 수영은 폐침윤 2기 진단을 받고 학교를 그만둔 상태며, 형기는 화재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운수 또한 “몸무게가 병적으로 가벼워서 징병 신체검사에 늘 무종을 받”(「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33)는다. 모두 국가가 제시하는 ‘정상’의 기준에는 한참이나 못 미치는 ‘비정상’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런 자격 미달의 ‘비정상’의 신체를 희망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흠친 여름」의 영일은 “난 많은 병에 걸리고 싶어. 이번 여름엔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 병에 걸려보고 싶어. 그럴 계획이야”(「내가 흠친 여름」, 33)라는 엉뚱한 계획을 내놓기까지 한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다짐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김승옥 소설의 청년들은 허약하고 기운 없는 모습이거나 심지어 질병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신체적 건강만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다. ‘튼튼한 몸’과 함께 요구되는 ‘성실한 마음’ 또한 김승옥이 그린 청년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의 차창에서 정우(「환상수첩」)가 발견한 것은 아무런 감정도, 의욕도 없이 모든 것에 무관심한 표정의 “늙어버린 원숭이 한 마리”(「환상수첩」, 12)다.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의 주인공 또한 하루 종일 차가운 방에 누워 빈둥거리며 무한한 공상의 세계에 빠져 있을 뿐 난관을 극복해보려는 성실한 태도나 열정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역사」의 주인공도 다르지 않다. 그는 “무쾌하고 부랑아 같은 생활태도”에, “천성의 게으름과 가난한 자들의 특징인 금전의 낭비벽,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고향도 없이 죽는 날까지 이 서울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절망감”(「역사」, 88)까지 가진 인물이다.

성실과 열정, 희망과 용기 등 이상적 국민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조건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로만 가득하다.

오히려 국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역사」의 주인공이 하숙하고 있는 양옥집 사람들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해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해내고 있다고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준 그늘 없는 표정 - 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희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역사」, 107)

계획성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모습, 시련과 균열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달려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양옥집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을 외치던 박정희 정권이 추구하는 이상적 국민의 삶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성실한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침 여섯시 기상’으로 시작해, ‘오전 열시 미싱 소리’, ‘열두시 라디오’, ‘오후 네시 <엘리제를 위하여>’, ‘오후 여섯시 반 귀가’, ‘열시 오륙 분 전 거실에서 물 한 컵’ 등 구체적인 숫자(시간)로 이루어진 ‘정식(正式)의 생활’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며 발전지향적인 삶의 방식이라 할만하다. 대통령 박정희가 강조하는 삶과 내세우는 목표 역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로 가득 차 있다. “經濟成長率 8.1% 國民所得 2萬 3千9百86원 65年度國民總生産 7千6百86億”(『매일경제』 1966.8.12.),

“輸出 목표 1억弗로 增額”(『매일경제』 1967.7.13.), “68年度 1人當 國民 所得 114弗30仙 확정”(『동아일보』 1967.8.28.), “朴대통령은 叱사를 통해 75년도에는 수출 25억\$를 달성할 수 있게끔 모든 힘을 다하라고 당부”(『매일경제』 1968.11.30.)와 같은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에 올랐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생산과 효율은 오직 이러한 숫자들로 설명되고 증명될 뿐이다.

하지만 병든 신체와 나태하고 무기력한 정신 상태의 이들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을 리 만무하다. 목표와 계획은 커녕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은 오히려 배우던 학문이나 기술을 버리기까지 한다. 「내가 흠친 여름」의 창수와 「환상수첩」의 정우는 모두 학교를 휴학한 상태지만, 물론 이들의 휴학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 휴학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을 리도 없다. 학생이라면 웅당 학교에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김승옥의 청년들은 사회가 부여한 학업 이라는 임무를 거부한 채 그저 무위도식할 뿐이다.

청년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학교를 벗어나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시간을 보내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한 선택 중 하나는 여행이다. 그러나 나태하고 무기력한 이들답게, 이 여행 또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나 친구의 권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여행은 여느 여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날 밤 내 가슴이 파도에 흔들리는 해초처럼 불안스럽게 움직이던 이유는 첫째 돈 때문이었고, 둘째 그 여행이 지나치게 목적 없는 여행이 되리라는 점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여행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 두 가지

를 들라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여행을 떠나겠다는 우리가 딱하다는 것도 지나쳐 쾌ષ하다는 느낌이였다. 하지만, 녀석은 너무 걱정 말라는 것이였다. (「내가 흠친 여름」, 57)

구체적인 목적지도, 일정도, 여비도 없이 창수와 영일은 여행길에 오른다. 이들의 여행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혹은 여행을 통한 자아성찰과 자신감 회복 등 흔히 여행의 목적이라 불리는 장황한 설명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환상수첩」에서 정우와 윤수가 떠나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아들에 대한 염려로 부모가 계획한 여행이다 보니 분명한 목적지나 그럴듯한 동기가 있을 리 없다. 물론 애초에 여행을 권유한 부모의 의중은 “여행중에 차분히 생각도 좀 해보고 (...) 여행하고 와서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살아보”(「환상수첩」, 69)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으나, 정우와 윤수의 여행은 부모의 그런 기대나 소망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간다.

이처럼 김승옥이 그리는 청년들은 하나같이 “목적지를 잊은 사람들”(「서울 1964년 겨울」, 270)이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은커녕 목적지도, 목표도 없기에, 이들에게서는 희망이나 열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하면 된다’와 ‘할 수 있다’는 주술 같은 믿음이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추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김승옥의 청년들은 허약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목적지 없는 방향을 할 뿐이다. 국가가 요구하는 ‘생산적 주체’ ‘발전주의적 주체’로서의 모습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기대하는 개혁과 진보의 주인공과는 상반되는 이들을 가리켜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며,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사회로의 발전과 개혁을 목표로 하는 이 사회에서 허약하

고 병든 신체와 나약한 정신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한계를 열정과 노력, 의지와 집념으로 극복할 때 이상적인 국민으로서의 성공 신화는 더욱 제값을 받는다. 당시 성행했던 민중 수기 대부분이 성장소설의 플롯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관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던 새마을지도자들의 수기나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의 수기는 그 성격과 담론의 지형은 너무 상이했지만, 무지, 무학, 가난이라는 결핍과 불완전의 상황을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여 성공에 이르렀다는 이야기 공식만은 모든 수기가 공유하는 것이었다.²¹⁾ 국가 정책에 동원된 이들이든, 그것을 비판하는 이들이든, 성실하고 근면하며 열정적인 모습이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정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였던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논픽션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의 선정 기준 역시 이러한 이상적인 국민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실하고 유능한 우리나라 청년상을 부각”(강진재, 제6회 심사평), “성실성을 전달하는데 실패한 작품들”(민두기, 제6회 심사평), “우리 사회가 바라는 긍정적인 청년상”(방기환, 제6회 심사평), “인간 승리에의 끈질긴 집념”(박현서, 제9회 심사평), “참답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임현영, 제14회 심사평) 등 다수의 심사평에서 수기의 주인공들이 보이는 성실함과 집념, 의지 등의 태도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서 성실과 근면, 건강함과 열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승옥이 그리는 청년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이나 결핍을 극복하려고 ‘노력’

21) 이 시기 민중들의 자전적 글쓰기에 나타난 성공과 성장의 욕망에 대해서는 김경민, 「1970-80년대 서발턴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노동자,농민 수기의 서사구조와 욕망의 메커니즘」(『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집 3호, 2016.8)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하거나 ‘열정’을 쏟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의 범주에 드는 조건을 일부러 정상의 경계 아래로 끌어내리는 위악적 행태를 취하기까지 한다. 열정과 노력의 의지가 없으니 당연히 이들이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들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라고는 하루 종일 방안에 누워 천장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낮잠을 자고 기타를 연주하며, 시를 끄적거리거나 무의미한 농담을 주고받는 등이 전부인데, 이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 즉 ‘무위(無爲)’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무위(無爲)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양상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나태, 게으름, 빈둥거림이라고 일컫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행위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특히, 근면, 성실, 열정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들의 눈에는 어떠한 결과물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혹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둘이 별반 다르지 않다. 기존의 상당수 논의가 김승옥 소설의 청년들을 설명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그 인물들을 가리켜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라고 분석하는 것 또한 이런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²²⁾

그러나 ‘무기력’과 ‘무위’를 결과적 양상만 놓고 동일한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전자가 불가항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이르게 되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²³⁾ 따라서

22)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저주받고 찢겨진 자화상을 붙들고 구제받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해 몸부림치는 30년대 이상의 개인”이나 “전후의 허탈감과 가치관의 흔들림 속에서 무위(無爲)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조적인 50년대 손창섭의 개인”과 동일하다는 김치수의 논의가 대표적이다(김치수, 『한국소설의 과제』, 김치수 외 편,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82, pp.150-151).

23) 흔히 ‘무위(無爲)’라고 하면 노자의 사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노자의 ‘무위(無爲)’ 개념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하며, 따라서 일부의 해석만으로 ‘무위’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차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무위’는 노자의

이런 기준을 놓고 보자면, 김승옥의 청년들을 가리켜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배제되고 실패한 존재들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 과연 그들은 자신의 의지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저 ‘수동적으로’, ‘불가피하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청년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 즉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보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김승옥의 청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목적 없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방안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기는 한다. 다만 그것들 모두 ‘쓸모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 즉 ‘무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새로운 사회로의 발전과 진보를 목표로 하는 시대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쓸모’를 갖대로 이루어진다. 성장과 진보에 도움이 되는 것,

사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나 노자의 ‘무위’에 대한 몇몇 해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위’의 의도나 맥락과 닿아있는 것도 있다. 가령 이택용은 ‘무위’ 행위의 핵심을 “세상의 일반적인 경향과 반대되는 행위”로 설명하면서, 이때 무위의 구체적인 모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짜우지 아니함’, ‘스스로 無知, 不學함’, ‘반대로 행함’, ‘仁義禮智를 부정함’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즉, 기성의 사회가 요구하거나 규정해놓은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무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택용, 『『노자』의 無爲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 72집, 2012, p.159.) 또한 ‘무위’의 주장을 ‘방임사상’, 즉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사상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무위’의 주장은 방임사상 즉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사상을 발생시켰다. 이런 사상은 불간섭주의에서 온 것으로, 노자는 지배계층의 자아 팽창이 백성들의 자유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이 때문에 ‘무위’의 관념을 제출함으로써 통치자들의 강제성과 지나친 관여를 해소하려 하였다. 노자가 구상한 사회에다 ‘민주’라는 관념을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자유스러운 것이다”(진교웅, 최진석 옮김, 『노장신론』, 소나무, 1997, p.58).

즉 ‘유용(有用)’한 것들만이 살아남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들이었다. 족보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수(將帥)가 있다고 했다. 그네들이 가졌던 힘,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고 유일한 보물이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형의 재산은 가보로서 후손에게 전해졌다. 그것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영광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도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고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역사」, 104-105)

당시는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사에서 “착실한 성장을 꾀하는 경제국민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로 “무엇보다도 생산을 증강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구성된 시장사회였다.²⁴⁾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조차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과 같은 숫자로 가능 되는 사회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격이나 순위와 같은 숫자로 평가되고 거래되었으며, 시장과 화폐가 사회적 인정과 합리화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이 사회에서 화폐로 교환되지 않는 행위는 모두 ‘무용지물’일 뿐이다.

24) 최현, 「시장인간의 형성: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저항」, 『동향과 전망』 제81집, 2011 참고.

이런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은 서씨가 가진 남다른 힘을 남들보다 더 많은 벽돌을 나르고, 더 많은 땅을 파는 것, 즉 생산량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서씨의 힘이 그렇게 사용될 때 비로소 사회는 그의 힘을 ‘보물’로, 가치 있는 것, 유용(有用)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서씨는 이런 ‘유용’한 방법을 거부하고, 생산과 발전이라는 사회적 기준에서는 ‘무용(無用)’한 형태로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 한밤중에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들어 올려 서로 위치를 바꿔놓는 서씨의 행동은 분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생산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서씨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그리고 그 힘이 가진 영광스러운 의미를 표현한다. 오직 ‘유용(有用)’한 것만이 인정받는 시대에, ‘무용(無用)’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쓸모없는 것’, ‘무용한 것’으로 취급받는 행위의 절정은 바로 예술(문학)이다. 허약한 신체와 나태하고 무기력한 김승옥의 청년들이 유일하게 몰두하는 공통의 행위는 공교롭게도 ‘문학’이었다. 버스 탈 돈마저 떨어진 「역사」의 주인공이 매일 방에 틀어박힌 채 하던 것은 희곡 습작이었으며,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의 주인공 역시 소설 습작을 하는 청년이다. 휴학을 하고 쫓기듯이 고향집에 내려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정우(「내가 흠친 여름」)가 유일하게 몰두하는 것 역시 “동화 나부랭이나 꼬적거리”(「내가 흠친 여름」, 27)는 것이다. 이들이 희곡을, 소설을, 동화를 쓰는 것은 자아실현이나 심미적 만족 등의 고상한 이유가 아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돈이 필요했다면 왜 하필 그런 수단을 썼느냐”(「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151)는 주인공의 자조적인 질문처럼, 현실에서 이들이 선택한 문학이라는 방법은 돈벌이로 이어지지 못한다. 개발과 성공이 미덕이며, 속도와 힘, 경쟁과

성공의 신화로 가득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일시적 유희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고, 실질적인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행위는 결코 ‘유용(有用)’의 반열에 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술집으로 추방당한 문학”(「환상수첩」, 87)일지라도, 유용의 잣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문학일지라도 청년들은 이 무용한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 “시 한 줄 못 쓰고 가을만 기다리다가 그 가을도 보내버리고”(「환상수첩」, 73) 마는 것이 전부지만 여관 숙박계 명부에 자신의 직업을 ‘시인’으로 적기를 주저하지 않는 윤수가 「환상수첩」에 등장하는 여러 유형의 청년들 가운데 작가가 가장 긍정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속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윤수는 가장 실패한 인물이다.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춘화를 팔아서라도 살아남겠다는 수영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채고 요리조리 미끄러 빠지며 처신해가는”(「환상수첩」, 93) 인물로, 그야말로 유용함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시대상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다. 그에 반해 윤수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런 ‘유용’의 기준에서는 그저 “무의미한 것”이자 “어설픈 미덕”(「환상수첩」, 93)일 뿐이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시 쓰기를 계속하는 것이나, 윤간당한 수영의 여동생의 복수를 대신하려다 결국 죽음을 맞는 것은 모두 아무런 보상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 까지도 수영의 동생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서커스단의 미아를 걱정한다. 타인에 대한 희생, 정의, 책임 등도 모두 생산과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유용한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유용함을 방해하고 부정하는 것들이며, 그렇기에 권장되어야 할 미덕이 아니라 “어설픈 미덕”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주인공들이 늘어놓는 농담과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의 주인공이 종일 방안에 누워 펼치는 공상 역시 생산과

개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용한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안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 안에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서울 1964년 겨울』, 259)

(…) 이럴 땐 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체에서 가장 처치 곤란한 것은 손이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또는 연단에 섰을 때, 오늘처럼 겨울날 추운 방에 누웠을 때 가장 처치 곤란한 것은 손이다. 군대에서 가끔은 영리한 짓을 만들어낸다. 열중쉬엇! 그러면 손바닥 두 개는 척추계에서 서로 만난다. 열중쉬엇의 자세가 그러나 이불 속에 누웠을 때는 곤란하다. 척추에 깔려서 손바닥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손바닥은 바람 속에 선 전선들처럼 웅잉 소리를 내며 저러온다. 정말 전류가 통해 있는 것만 같다. 손처럼 처리하기 곤란한 물건은 없다는 생각도 이젠 내 고정관념 중의 하나이다.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145)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이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상황이나 손이 처리하기 곤란한 물건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확신을 하는 상황은 모두 목적도, 의미도 없는 행위일 뿐이다. 생산과 개발에 매진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시대적 소명에 비춰보자면 인용문에서 청년들이 보이는 모습은 모두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고 쓸모 없는 것들이다. ‘쓸모(用)’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효과를 내는 작용”이

라는 정의에 비춰보자면, 조국 근대화 혹은 사회 변혁이 목표였던 당시 사회에서 ‘쓸모(用)’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국가의 발전과 성장, 개혁과 진보에의 기여 여부였고,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쓸모없는 것(無用之物)’으로 취급되는 것이 당연했다.²⁵⁾ 그 결과, 김승옥 소설의 청년들은 “생존을 위하여 근대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엔 부적용자” 혹은 “소외된 주체”나 패배자로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IV.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행동으로서의 無爲

한국 근현대사에서 세대를 호명하는 다양한 명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4.19세대’일 것이다. 그리고 그 4.19세대 청년들에게 4.19혁명이 남긴 최고의 유산은 ‘개인’과 ‘자유’라는 가치였다. 4.19세대와 그들의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권보드래는 “4.19혁명을 통해 비로소 개인의식의 발아가 가능해졌으며 4.19세대가 담당했던 문학적 임무란 곧 개인의 선언에 있었다”²⁶⁾는 말로 4.19세대의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25) 최진석은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 ‘쓸모(用)’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효과를 내는 작용”이라고 해석한다. 그렇기에 ‘쓸모’는 항상 ‘그릇(器)’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 ‘그릇’을 배태하고 있으면서 아무 그릇도 아닌 상태, 즉 어떤 테두리도 아직 닿기 이전의 상태는 통나무, 즉 ‘박(樸)’으로, ‘박’은 아직 ‘쓸모’로 흠어지기 이전의 원본 상태를 뜻한다. 노자는 ‘도(道)’를 바로 ‘박(樸)’에 비유하며 말하는데, 노자에게 ‘도(道)’나 ‘박(樸)’은 쓸모나 유용성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진정으로 큰 쓸모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감각 세계에서 사용되는 테두리 지어진 작은 쓸모들을 훨씬 벗어난 것이 된다(최진석, 「무용지물(無用之物): 쓸모없음의 쓸모」, 『철학과 현실』, 2017.6, pp.182-183).

26)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p.66.

물론 ‘개인’과 ‘자유’가 온전히 4.19혁명의 유산이라고만 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선언이 4.19세대 작가들만의 문학적 임무라고만 할 수도 없다. 근대적 개인과 소설

‘자기 세계’라면 분명히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성곽에서 대기는 연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대고 그 사이로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었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쉴 새없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된다. (「생명연습」, 30)

김승옥 소설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자기 세계’ 역시 ‘개인’의 중요성을 자각한 4.19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혁명으로서의 4.19를 경험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타인의 뜻과 신념, 이상이 아닌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그 세계는 기성의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모습보다 초라하고 형편없는 지하실의 삶일 수 있다. 그러나 지하실의 곰팡이와 거미줄마저도 모두 귀한 재산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세계’였다.

이렇듯 4.19혁명을 계기로 “독립된 하나의 세계”로서의 ‘개인’을 자각한 청년들에게는 “상황이라는 압력 속에서 한 인간의 독자적인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가라는 문제”²⁷⁾가 가장 중요한 실존적 고민으로 다가

의 관계를 이야기한 루카치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개인’과 ‘자유’가 근대 문화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4.19혁명 이전의 우리 역사의 대부분이 식민지통치와 전쟁 등 극단적 예외상태로 점철되어 있기에, 이러한 외부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과 ‘자유’의 가치를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4.19혁명이었다는 점에서, 권보드래의 생각에 동의하는 바이다.

27) 김주연, 「70년대 작가의 시점」,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학지성사, 1979, p.45.

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와 그것을 수행할 책임자로서의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도자는 국가재건의 주축으로 청년들을 호명하였고, 그 지도자를 비판하며 저항하던 진보적 지식인들 역시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청년들을 소환했다. 이렇듯 미완의 혁명이 끝난 이후 청년들을 향해서는 수많은 기대와 요구가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가 청년들이 쌓아올리고 있는 ‘자기 세계’를 침범하거나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로서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부추기는 달콤한 기성의 목소리가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것 역시 혁명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개인’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폭력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설령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부여하는 소명이라 할지라도 자기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억압과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의 이런 모습을 결과적으로만 판단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는 식의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평가를 내린 기존 논의의 시각은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나는 문득 교정과 강의실의 우중충한 건물들에 대하여 맹렬한 사랑을 느꼈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 그거야말로 진실로 나의 학교였다. 깨닫고 보니 항상 방학을 기다리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했다.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방학중인 학교야말로 나의 학교였다. (「내가 흠친 여름」, 22)

김승욱 소설에서 대학생 청년들 대부분은 자퇴나 휴학을 하고 학업을

포기한 상태로 그려진다. 물론 이런 모습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수동적, 소극적, 패배의식, 허무주의 등의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한 이유는 단순히 학교나 공부에 대한 싫증이나 반항의 차원이 아니었다. 「내가 흠친 여름」의 주인공의 독백이 보여주듯, 매사에 무기력하고 무관심해 보이던 이들은 오히려 학교와 공부에 대해 상당한 열정과 사랑을 보이고 있다. 단지 그들은 끊임없이 경쟁자를 의식해야 하는 형태의 공부, 진보와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공부를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공부는 청년들이 희망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욕망과 필요가 투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청년들 스스로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주어진 역할과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쉽게 동의하고 따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 세계의 영토와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외부로부터 주어진 목표와 계획은 그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성의 요구와 개입을 거부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매사에 열정 없는 모습, 더 나아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위(無爲)였던 것이다. 외부의 시선에서 무위는 게으름, 나태, 비효율과 생산 불능의 다른 이름이며 부정적이고 가치 없는 행위의 기호지만, 청년들에게는 개발과 성장, 진보나 개혁과 같이 기성이 정해놓은 목표에 대한 거부이자 저항의 의미가 담긴 의식적인 행위가 바로 무위(無爲)인 것이다. 즉,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기성의 잣대로 봤을 때 쓸모없고 무의미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한다. 사회 변혁이나 새로운 국가 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공상과 망상을 일삼는가 하면, 문학과 예술이라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무용한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 발전이나 사회 개혁에의 기여는 기대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만족적인 행위에 몰두하고 거기에 자신의 정열을 쏟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자면, 이들에게 붙여졌던 무기력과 소극성, 패배주의와 허무주의 등의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이미지는 수정되어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듯한 그들의 행동은 결코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선택과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V. 또 하나의 혁명, 1960년대 청년의 새로운 윤리

어떤 명분보다 ‘개인’의 가치가 중요한 세대, 이것이 ‘개인’과 ‘자유’를 의미하며 혁명의 거리로 뛰어 나온 새로운 청년 세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 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중요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 세계’에는 빈둥거리고 게으름 권리도, 생산적 주체가 되지 않을 권리도, 무용한 것들에 탐닉할 권리도, 심지어 자살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1960년대와 그 시대 청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4.19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이 역사적으로 발현된 사건이며,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청년이라는 주체가 미래의 희망을 선취해야 할 대상으로 호명되었다”²⁸⁾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해석이 ‘호명된’ 이미지라는 점이다. 실제로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기성의 바람처럼 희망적이거나 열정적인 미래의 주역도 아니었으며, 반대로 또 다른 기성의 평가처럼 무기력하거나

28) 김영삼, 「1960년대 소설의 정치철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5, p.37.

소극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습관도 아니고 단순한 충동도 아니게. 계산하고 계산해서”(『짜게 사들이기』, 202) 살고자 했다. 그 계산의 결과가 바로 ‘무위’였으며, ‘무용’한 것들의 추구였던 것이다.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부여된 역할과 책임, 소명이라는 공적 폭력으로부터 ‘자기 세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이들은 “계산하고 계산해서” 의도된 무위를 행했으며, 무용한 것들을 선택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상투적 표현처럼, 이들은 ‘무위’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념과 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용한 가치에 노력과 열정을 쏟음으로써 사회적 평가가 아닌 자기 세계의 논리와 명분을 지키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청년 세대가 기성이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과거의 윤리와 이별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윤리를 마련하여 실천해가는 과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평가할 만하다.

청년 세대에게 열정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열정’, ‘노력’이 청년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어버렸다. 특히, 김승옥과 그의 소설 속 청년들이 살았던 1960년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역할과 소명을 기대했던 시대였다. 청년들을 소환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목표가 개발과 성장이든, 진보와 개혁이든 기성의 세대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의 책임과 임무를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것이 그 시대 청년들이 지켜야할 윤리였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윤리는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인가? 청년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해야 하는가? 그것만이 바람직하고 건실한 청년의 모습인가? 당대를 대표했던 김승옥 소설은 당시 사회를 향해 이런 물음을 던진 텍스트였다. 소설의 청년 인물들이 보여준 무기력과 나태, 불성실과

방황의 모습은 이러한 통념에 대한 비판과 거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승옥 소설의 청년 인물들에 대해 타의에 의한 무기력과 좌절된 의지, 목적 없는 방황과 정치성의 결핍이 아니라 ‘의도된 무위(無爲)’였으며, ‘계획된 무용(無用)’이었다는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4.19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열정과 의지가 향간의 평가처럼 5.16으로 거세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히 발현되고 있었음을,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 편 2권』, 인물과사상사, 2004.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 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4.
-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 김경민, 「1970-80년대 서발턴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노동자, 농민 수기의 서사구조와 욕망의 메커니즘」,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집 3호, 2016, pp.1-33.
-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문학동네, 2004.
- 김영삼, 「1960년대 소설의 정치철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5.
- 김태길, 「파이오니어로서의 姿勢-大學生과 모랄의 改造」, 『사상계』 1962. 4.
- 김주연, 「70년대 작가의 시점」,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 김치수 외 편,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82.
- 노지승, 「대학생과 건달, 김승옥 소설과 청춘 영화에 나타난 1960년대 청년 표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집, 2007, pp.387-443.
- 박대현, 「청년문화론에서의 ‘문화/정치’의 경계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집, 2012.9, pp.419-444.
- 소영현, 「대학생’ 담론을 보라」, 우찬제, 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 송태욱, 「김승옥 소설의 독자를 찾아서」, 백문임 외, 『르네상스인 김승옥』, 앨피, 2005.
- 이상록, 「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 담론과 청년문화」, 장문석, 이상록 엮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제25집, 2011, pp.116-159.
- 이상록, 「산업화시기 ‘출세’, ‘성공’ 스토리와 발전주의적 주체 만들기」, 『인문학연구』 제28집, 2017, pp.43-93.
- 이택용, 「『노자』의 無爲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72집, 2012, pp.127-166.
- 이호규, 「1960년대 서사에 나타나는 ‘청년’ 표상의 조건과 선택」, 『대중서사연구』 제23집 3호, 2017.8, pp.453-486.
- 장이욱, 「권두언:청년의 정열」, 『새벽』 1960.10.
- 진고응 지음, 최진석 옮김, 『노장신론』, 소나무, 1997.
- 최진석, 「무용지물(無用之物): 쓸모없음의 쓸모」, 『철학과 현실』, 2017.6, pp.180-186.

최현, 「시장인간의 형성:생활세계의 식민화와 저항」, 『동향과 전망』 제81집, 2011, pp.157-195.

황호덕, 「청년, 그 이상의 이념을 생각한다:超世代論序說」, 『당대비평』, 2003.3, pp.235-249.

Abstract

Inaction and Uselessness, New Ethics of 1960s' the Youth

- Focused on Kim Seungok's novels -

Kim, Kyung-min

Through all ages, youths have been branded as the driving force of new era and the symbol of hope and passion. However, the rhetoric that symbolized youth are only given by older generation and society and not called by themselves. Moreover, the youth of 4.19 generation who poured out into the street shouting for the “Individual” and “Freedom” was forced to be negative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given regardless of their choice or will. It has been mostly interpreted such that the young characters in the Kim Seungok's novel, which symbolically draw the youth in 1960s after 4.19 revolution, are all pathetic, passive, failed, and isolated. However, the new interpre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they actively planned and chose the actions to resist forced roles and values from older generation even though they seemed as lacking passion and efforts, lazy, and useless. The young characters in Kim Seungok' novel tried to protect “their own world” by showing positiveness in their behaviors in literature, art, and imagination that are useless and unproductive from the older generation's logic. A series of their actions described as inaction and uselessness is a process of separating the past ethics assigned unilaterally by older generation, making new ethics, and actioning. In that sense, it is worth evaluating as an act of the extension of revolution.

Key word: The Youth, Kim Seungok, 4.19revolution, 4.19generation, Ethics, Individual, Inaction, Uselessness

김경민

소속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redwine61@daum.net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